



올해부터 법연에 기관동호회를 소개하는 코너가 생겼고, 그 순서의 첫 번째로 저희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약칭 : 영사모)을 소개하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0년 봄까지 영사모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호회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편집위원회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가장 역사가 오래된 동호회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 동호회를 간략하게나마 자랑스럽게 소개하고자합니다. 사실 저도 영사모에서의 활동이 4년차에 접어들고 있는지라 기나긴 영사모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회계역할을 맡으며 인수인계 받은 자료로부터 영사모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정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영사모는 2005년에 동호회를 창립하여 15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영사모는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영화에 대한 상식과 이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며 돈독한 인간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 창립부터 2007년 봄까지를 1기로 하여 2020년 봄까지 14기의 회원들이 활동을 해오고



#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소개합니다.



있습니다. 1기 인원 18명으로부터 14기 현재 32명의 회원이 영사모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기부터 14기까지의 활동서류들을 쭉 분석해보며 어떤 영화들을 보았으며,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법제연구원이 서울 양재에 청사가 있었던 시기에는 주로 강남권에 있는 여러 멀티플렉스 극장과 지역 극장을 방문하여 1기(창립-'07봄)에는 이터널선샤인, 뮌헨, 인사이드 맨, 한반도, 타짜, 2기('07-'08봄)에는 행복을 찾아서, 밀양, 화려한 휴가, 3기('08-'09봄)에는 놈놈놈, 다크나이트, 강철중-공공의적 등 다양한 영화를 관람하였습니다. 4기('09-'10봄)에는 삼암월드컵경기장의 축구경기 단체관람도 진행하였으며, 정기모임 중 뮤지컬 및 연극 관람도 하고 1박2일 영화캠프도 진행하며 문화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주최 및 참여하였습니다. 연구원이 세종으로 이전한 2014년부터는 대전의 멀티플렉스 극장을 주로 방문하여 9기('14-'15봄)에는 사랑에 대한 모든 것, 허삼관, 국제시장, 10기('15-'16봄)에는 장수상회, 치외법권, 검은사제들, 11기('16-'17봄)에는 아가씨, 부산행, 곡성, 라라랜드 등의 영화를 함께 관람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영사모 10주년을 기념하여 가장 보고싶은 영화를 투표로 선정하여 원내에서 모여 영화 '침밀밀'을 상영하여 영화관람을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상현  
☎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  
연구지원2팀 연구원  
✉ lsh21world@klri.re.kr



14기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부산국제영화제 참여

최근 3년간의 모임에서는 한 영화에 대한 단체관람보다는 같이 식사하고 보고싶은 영화를 각자 관람하여 후기를 공유하는 형태로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11기('16~'17봄)부터 현재 14기('19~'20봄)까지 택시운전사, 범죄도시, 남한산성, 신과함께, 1987, 보헤미안랩소디, 극한직업 등 영화자체의 흥행여부와 상관없이 회원 각 개인이 선호하는 다양한 영화들을 관람하고 서로 영화평을 공유하는 등 많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특히 14기('19~'20봄)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도 참석하였습니다. 개막작은 엄청난 티켓경쟁으로 관람하지 못했지만 마법의 눈, 에르네스토의 시선, 아만다의 선택, 반교:디텐션, 퍼스트러브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참여한 회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는 후기가 많아 앞으로 정기적으로 국제영화제에 참석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기생충"의 황금종려상 수상소식에 비정기모임을 통해 개봉일에 바로 관람을 진행하였으며, 연구원의 전체 워크숍에서 영화상영회를 개최하여 동호회의 활동을 연구원 식구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알라딘, 라이온킹, 봉오동전투, 김복동, 조커, 남산의 부장들 등 다양한 모임의 형태로 영사모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미 모임에서 기생충 관람을 진행했었지만, 아카데미 4관왕 수상을 기념하여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자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년간의 영사모 역대 활동자료들을 정리 및 분석을 해보면서 당시에 관람하였던 영수증을 통해 영화제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아 그때 그 영화가 개봉했었지"하면서 친찬히 정리를 하다 보니 영화의 면면을 통해

우리나라 영화의 변천사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최근에 와서야 이슈가 되는 영화 등 많은 연관된 이야기들이 기억 저편에서 떠올랐습니다. 1년 중에도 수많은 영화가 개봉하고, 흥행을 하거나 흥행에 실패하거나, 이슈몰이를 하든 해외에서 수상을 하든 어떠한 영화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영사모는 모임을 통해 영화를 함께 관람하고 서로 간 영화평을 공유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만들어 활발하게 활동해왔습니다. 15년의 역사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잠시 동안 함께하였던 연구원 동료분들도 계시지만 現회원과 前회원의 여부를 떠나 회사의 동료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았던 그 하루하루의 날들은 기억 속에 남아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추억을 만드는 곳, 내가 그 영화를 보았던 때가 몇 살인데, 그때 그 영화가 그랬지 하고 기억 저편의 기억도 되찾아오며,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이야기거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임, 그 모임이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영사모"입니다.



14기 세종 한 식당에서 제2차정기모임